막가파 “신문 1면 나왔으니 연봉 좀…”

베테랑 담당자들에게 들어본 ‘연봉협상테이블 천태만상’

논리형은 논리로 제압…오히려 쉬워
백지위임파 인기 없고 침묵형 힘들어
요즘 고과 정밀…처음부터 액수 통보

구단은 아무리 후하게 줬다고 여겨도 선수는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봉협상이다. 때문에 구단의 연봉협상 담당자는 매년 이맘때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복수의 프로야구단 베테랑 협상 담당자의 육성을 빌려서 연봉협상의 고뇌와 세태 변화를 청취해봤다.

●천차만별 스타일

협상자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선수의 협상 양태는 ▲막무가내형 ▲침묵형 ▲논리형 ▲읍소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저마다 다도장을 꺼내놓기까지 큰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쉬운 쪽은 오히려 논리형이다. 논리로 들어올 경우 논리로 설복시키면 의외로 일이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자체 고과를 자기가 매겨서 갖고 들어오는 치밀한 선수도 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설득에 노고가 뒤따른다.

막무가내형은 이를테면 “스포츠신문 1면에 내가 몇 번 나왔다. 고로 그 광고비용에 해당하는 인상을 해 달라”는 식이다. A구단 협상자는 “스포츠신문이 서울판, 지방판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웃는다. 요즘은 이런 ‘신문 스크랩파’ 유형은 거의 없단다.

그래도 협상자는 말이 되든, 안되든 입을 여는 쪽이 편하다. 가장 힘든 쪽이 바로 침묵형이다. 뭘 원하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 의외로 읍소형이나 백지위임파는 인기가 없다. 서로 할 얘기를 다하고 공감하는 소통형이 가장 고마운 유형이라고 말한다.



●진화하는 협상술

협상 수법에는 크게 키신저식과 살라미식이 있다. 살라미식은 처음에 약하게 불러놓고 협상을 진행하며 조금씩 올려주는 방식이다. 키신저식은 처음부터 모든 패를 다 까서 보여주되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방식이다. 옛날과 달리 요즘 구단들은 키신저식을 선호한다. 때문에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그만큼 고과가 정밀해졌다는 반증이다. 또 한번 굳어지면 선수와 구단이 신뢰가 쌓인다는 장점도 있다.

●옛날보다 요즘이 낫다

베테랑 협상자들은 하나같이 “굳이 따지면 요즘 협상이 더 쉽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옛날에는 연봉 액수가 작다보니 10만원 단위까지 싸워야 됐다. 또 선수 입장에서도 연봉이 전부였으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선수들은 1000만원 단위로 돈이 움직이니 몇 백 만원은 통 크게 양보한다. 가욋돈도 많은데 다 FA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간을 끌수록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선수들의 압박감도 작용한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사도스키 “…” 속타는 롯데

ML 도전 의사…재계약 미적미적
롯데 용병 남은 한자리 아직 미정

아무래도 해를 넘길 분위기다.

LG와 넥센은 두 명 용병이 확정된 상태. 나머지 구단도 적어도 1명은 사인이 끝났지만, 내년 시즌 용병을 두 명 모두 투수로 채우기로 한 롯데는 아직도 소식이 없다.

롯데는 일찌감치 2010년 10승, 올해 11승을 거둔 사도스키(사진)와의 재계약 방침을 정했다. 두산 니퍼트처럼 ‘절대 에이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발진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봉도 섭섭하지 않게 올려줄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도스키가 현재까지 ‘OK 사인’을 내지 않고 있다. 타지 생활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고, 더 늦기 전에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는 게 구단의 설명.

그러나 롯데는 사도스키 잔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늦어도 1월 초에는 계약을 이끌어내 전지훈련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다른 한 명이다. 롯데가 군 입대로 빠져나간 장원준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당초 접촉했던 ‘빅리거급’ 좌완 특급 선발 영입은 상대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 발을 빼면서 물거품이 됐다. 현재 2~3명의 후보로 압축한 상태지만 연말연시가 겹치면서 이것도 쉽지 않다.

정대현 이승호를 영입하며 불펜진을 강화해 내년 시즌 또다른 도약을 노리는 롯데는 수준급 용병 선발 두명을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구단도 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어느 해보다 공격적으로 스카우트에 나서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28일, “1월 초가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다”면서 “좋은 용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임창용 54억원 1년 더 야쿠르트맨

특급 소방수 1년 계약연장 합의
내년 시즌 한일 통산 300S 노려

야쿠르트 소방수 임창용(35)이 내년에도 3억6000만엔(54억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본의 스포츠닛폰은 28일 “야쿠르트가 세 명의 외국인 선수와 모두 재계약했다. 마무리 투수 임창용은 올시즌과 같은 연봉 3억6000만엔에 사인했다”고 보도했다. 임창용은 2010 시즌이 끝난 후 3년간 총액 15억엔(223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야쿠르트와 재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계약 연장이 유효하다는 옵션 조항이 붙어 있다. 임창용이 내년 시즌 후 상황에 따라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셈이다.

임창용은 올해 일본 프로야구 진출 이후 가장 많은 65경기에 등판했고, 4승 2패32세이브(센트럴리그 5위)에 방어율 2.17의 성적을 올렸다. 야쿠르트가 올해 리그 2위로 발돋움 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2008년 일본 무대 데뷔 후 4년 통산 11승13패128세이브에 방어율 2.11을 기록하면서 야쿠르트의 ‘수호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의미 있는 기록도 눈앞이다. 한국에서 13년간 168세이브를 쌓아올렸던 임창용은 현재 한·일 통산 296세이브를 올려 통산 300세이브 고지까지 단 4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야쿠르트 소방수 임창용이 내년에도 3억6000만엔(54억원)을 받게 됐다. 그는 2010시즌 후 3년간 15억엔(223억원)에 재계약했으며 2012년을 마치면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계약연장이 유효하다. 스포츠동아DB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KIA 김상현, LG 박명환, 삼성 현재윤, 두산 이혜천(왼쪽부터) 등 4개 구단 대표들이 2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커피숍에서 선수협의 일방적인 박충식 사무총장 선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용인 | 연합뉴스

박재홍호 출범전부터 또 삐걱 “선수협 사무총장 다시 뽑아라”

박명환 등 4개 구단 대표 “선수협 탈퇴 불사”

프로야구선수협회가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털어내기 위해 수뇌부 교체를 단행한 지 며칠 만에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LG 박명환, 두산 이혜천, KIA 김상현, 삼성 현재윤 등 4개 구단 대표는 28일 경기도 용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홍(SK) 선수협회장의 일방적인 사무총장 선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였다. ‘정관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로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선수협을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8개 구단 선수들의 동의 없이 사무총장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현재윤은 “박 회장이 ‘선수협 집행부는 각 구단이 추천하고 검증절차를 거친 후보자 중 총회 찬반투표(찬성 3분의2)를 거쳐 선임한다’는 정관을 무시하고 외부세력과 결탁해 박충식을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에 추대했다”며 “이렇게 되면 몇몇 선수들의 협의로 일이 진행됐던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합법한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을 뽑아야 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선수협 탈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협 문제는 집행부였던 A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된 500여 선수의 연봉 1%로 모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선수들은 권리를 되찾자는 뜻을 함께 하고 외부 간섭 없이 선수협을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를 교체했다. 그러나 사무총장 선임건으로 또 다시 내분이 일어났다. 이혜천은 “단돈 100원이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 선수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과거 집행부가 저질렀던 만행을 바로 잡고 투명한 선수협 운영을 위해 선수들의 동의를 얻은 인물을 앉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환도 “선수들이 10년간 선수협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희생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사무총장을 뽑는 게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용인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현장주의 단장님 “점심은 2군과 함께”

LG 백순길 단장 “현장소리 듣겠다” 구리로



LG 백순길 단장(사진)은 전형적인 ‘경상북도 남자’다. 말은 짧고, 직설적이다. 이렇게 강한 이미지 때문에 오해도 사지만 절대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 주변의 평판이다. 백 단장이 지난 16일 LG 조직개편에서 운영팀장을 겸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내부적 역학관계나 바깥의 시선은 배제하고, 오직 ‘필요에 따라’ 움직인 판단이었다.

이런 백 단장의 현장주의를 잘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다. LG 안에서는 요즘 백 단장이 점심시간만 되면 사라지는 것을 두고 궁금증이 일었다. 처음에는 약속이 잡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갈수록 횟수가 늘어났다. 정시에 출근해 점심 때 사라져서 2~3시간 지난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다. 알고 보니 백 단장의 ‘점심 잠행’의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바로 LG 2군 연습장이 있는 경기도 구리에 다녀오는 것이었다. 백 단장은 “어차피 먹을 점심, 구리에서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과 먹으며 현장 얘기라도 듣는 게 낫지 않나”라고 주변에 그 이유를 들려줬다.

이런 백 단장의 파격 행보는 최근 알려진 ‘팬과의 만남’에서도 드러난다. 팬페스티벌을 자체 개최한 팬 10여 명과 서울 모처에서 자리를 가져 경청했다는 후문이다. “단장이 일이 터질 때마다 팬을 상대하자면 뒷감당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걱정도 나오지만 바로 이런 직선적 행보 덕분에 LG를 바라보는 눈길이 온건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준 기자

한화, 대전지역 저소득층 의료지원 업무협약식

한화는 28일 오전 11시30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세우리병원 및 대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선수단 대표로 주장 한상훈이 참석했다.

시카고 컵스, 오른손 불펜 소낸스타인 영입

시카고 컵스가 28일(한국시간) 오른손 불펜 투수 앤디 소낸스타인과 맷 코파스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마이너리그 강등시 연봉이 삭감되는 스플릿 계약이다. 소낸스타인은 탬파베이, 코파스는 콜로라도 출신이다.